



이경승 정다운(한결 한별 한솔 한엘) 2024 - 12월 기도편지

이경승 mkgeneration1@gmail.com katalak ID: kloan1
정다운 akumcss@gmail.com katalak ID: dawoon.jeong

R. Vila Amazonas 488 Apt. 502, Bloco C, Nossa Senhora das Graças, Manaus - AM CEP 69057-240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14절

▶ Lee family의 첫 브라질 국적 MK 탄생



2024년 12월 5일 12시 30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희 가정의 막내 한엘 (Elora)이가 건강히 태어났습니다. 선교지에서 첫 출산인데다 고위험임신으로 임신 초기부터 자궁원형뭉음술과 폐서리 시술, 임신 당뇨 등 많은 위기와 고비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현지병원에서 아무 문제없이 자연분만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에 브라질국적을 가진 MK가 생겼습니다. 외로운 선교지에 있는 저희 가정에 사랑과 위로를 한가득 가져다 준 한엘입니다. 태명이었던 '보배'답게 매일같이 오빠, 언니의 사랑을 듬뿍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운선교사와 한엘이를 위해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병원선 사역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존에서 병원선 사역이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고백 할 수 밖에 없도록 항상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올해 중순 6월 초부터 11월말까지 총 7개의 의료팀(자원의료봉사자 144명)과 함께 23곳의 강변마을을 방문하며 900명의 성인(311남, 589여), 149명의 청소년(58남, 91여), 536명의 어린이(230남, 306여), 130명의 어르신(68남, 62여), 총 1,715명이 다양한 진료와 도움을 받았으며 강변마을 교회들을 중심으로 전도사역과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지치고 외로운 현지목회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샌프랜시스코 예수인교회, 그리고 브라질 내에서는 쌍파올로, 리우데자네이루, 론드리나, 무리아에, 썩 조제 두스 강뿌스 등 많은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병원선을 방문해 주었으며 치과, 내과, 소아과, 정신의학과, 산부인과 등 여러 의료사역과 어린이사역, 구제사역 등 다양한 사역으로 강변마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10월과 11월에는 극한 가뭄으로 인한 낮은 강수치로 인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힘든 강변마을들을 방문하여 식량을 나눠주는 구제활동과 전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병원선 2개의 발전기 중 오래된 발전기(20년)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 지난 11월 중고 발전기를 급하게 6천불에 구입하여 새로 설치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총 11개의 의료팀이 가난하고 고립된 강변 마을과 인디언 부족을 섬기기로 약속해주었습니다. 가장 빠르게는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30명의 의료팀이 마나우스 근처에 위치한 Parque dos Tribos에 거주하는 인디언들을

섬기기 위해 파견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에는 메인 엔진의 정비 수리와 더운 부엌에 필요한 에어컨 설치를 위한 발전기 생산 용량을 늘리는 작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무찌령 유치원 사역

실업률과 각종 범죄가 심각한 무찌령 빈민촌 마을의 유치원 교육을 절실합니다. 12월 초 연말을 맞아 518명의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19명의 교사와 교장 선생님, 그리고 6명의 직원들을 위해 연말파티를 열어 이 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학교에 침범한 마약범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맨몸으로 싸우기도 하고 낡은 건물로 인한 열악한 교실환경, 그리고 빈민촌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의 여러가지 가정문제로 인해 사명 없이는 견디기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을 신실하게 잘 섬겨주셨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1월, 학교 뒷 건물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유치원 식당 벽에 금이 가고 2층 남자화장실 벽타일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뒷 건물 공사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12월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 인해 학교지붕 곳곳에서 심하게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12월16일에 시작한 방학을 이용하여 남자화장실 타일공사와 건축업체를 고용하여 지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3,500불의 견적이 나왔는데 재정이 잘 채워지고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수양관 사역



11월 23-24일 마나우스 현지 여덟 교회 (Manaus, Central, Movement, Fonte de Agua Viva, Mutirao, Novo Israel, Alfredo Nascimento, Piorini)의 청년연합수련회가 저희 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110명의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계획부터 진행까지 각 교회를 섬기는 다음세대가 리더들로 구성되어 섬겨주십니다. 특별히 남미 사람들의 특성상 쉽지 않은 각 교회의 다른 '사회계급 (빈민촌과 중산층)'을 뛰어넘어 한 마음으로 하나되어야 하는 연합수련

회를 처음으로 시도함에 있어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연합'이 이루어질지 많이 걱정하였지만 진정으로 '연합'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모든 시간 시간이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어 아마존의 선교를 책임질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련회 본당과 기숙사의 조명을 바꾸고 벽과 천장, 창문, 기둥 페인트칠과 바닥공사를 하였습니다. 2년전 폐허가 된 수양관이 다시 살아나 본 사명을 회복하여 다음세대를 섬기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무릎꿇고 감사의 눈물의 흘리는 시간이었습니다.



▶ 현지교회 사역들

생명샘 교회 - 모세목사님이 담임하시는 Cidade de Deus 라는 빈민촌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 선교모델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들 재정이 어려운 가정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다양한 선교프로젝트에 가장 열심히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건축의 대부분의 자금을 교회 자체적으로 모금하였을 뿐 아니라 온 교인들이 달란트와 시간을 투자하여 자체 가능한 공사를 직접 하는 등 교인들의 헌금과 헌신으로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수양관 수리와 무찌령학교 수리도 생명샘 교회의 교인들이 노동력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어컨을 달기 위해 천장공사를 본인들의 물질과 노력으로 마쳤습니다. 내년 더운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에어컨 2대를 구입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후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란두바 교회 - 헤니우다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이란두바교회는 마나우스에서 한시간 떨어진 이란두바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존 강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어 오랫동안 발전이 되지 않았던 지역이지만 얼마전 이란두바 지역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생기면서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많이 자랐습니다. 이란두바교회가 세워진 동네는 이란두바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인데 이곳에서 헤니우다 목사님은 자폐아들과 자살하려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 및 환경보호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때 거의 생을 마감하실 뻔 하셨고 아직도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시지만선교적인 사명을 품고 계시며 강변마을과 인디언부족 사역에 앞장서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 올해 따뚜요부족과 씨빠아부족에서 주님을 영접한 인디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광범위한 아마존 지역에 교통과 운송이 비싸고 어려운데 먼 곳에 있는 배고픈 인디언 아이들에게 빵과 간식, 장난감을 챙기시고 생식과 약을 나눠주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무찌령 교회 - 무찌령교회는 이경승 선교사의 부모님께서 1992년 브라질 사역 중 2번째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지난 3년동안 시무하시던 다니엘리 목사님께서 2025년부터 중앙감리교회에 부목사로 파송받게 되시며 청소년시절 이경승 선교사와 무찌령 교회에서 함께 자랐던 호제니우도 목사가 무찌령교회를 맡아 시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인데다 하나님께서 마나우스를 향해 주신 사명이 저희와 같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동역자입니다. 호제니우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나우스 교회 - 저희 가족이 협력목사로 섬기고 있는 마나우스교회는 군인, 회사 주재원, 의사, 간호사 등 주로 브라질 중산층의 교인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자립하여 주위에 미자립교회들을 많이 도우며 섬길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선교센터와 병원선 사무실이 있어 현재 저희 선교 베이스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올해에도 타주에서 부흥강사를 초대하여 지역 교회들에게 오픈된 여러 강의와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현지 감리사님 화씨마목 사님과 병원선사역자 멜리싸 목사님과 함께 마나우스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도제목

1. 저희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산후조리중인 정다운 선교사의 회복과 막내 한엘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도와주시기 위해 멀리서 와 주신 장모님(파라과이 이복래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온 가족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또한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이 충분한 쉼을 얻고 새로운 학기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수양관 재정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땅을 노리고 침범하는 자들을 막고 수양관의 안전을 위해 입구에 60M 철사 울타리를 치려 합니다. 2025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무찌렁유치원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축복이 되고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곧 시작될 지붕공사와 남학생화장실이 잘 마무리 되어 내년 학기가 잘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 2025년도에 아마존 강변마을과 인디언마을들을 섬길 병원선에 참여할 12 자원봉사팀들의 안전과 사역에 필요한 물질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5. 저희가 섬기고 있는 마나우스교회, 생명샘교회, 이란두바교회가 사랑과 진리에 서서 부흥하여 아마존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저희와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건강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잘 채워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024년의 12월 아마존 마나우스에서

이경승, 정다운, 한결(15), 한별(10), 한솔(8), 한엘(1개월) 드림

브라질 아마존 선교사역을 위해 물질로 함께 동참하시려면...

한국 : 하나은행 990-194764-156 예금주: GP (이경승, 정다운)

[한국 후원자 등록 안내]

선교회 자료 안내, 연말정산등록, 후원영수문자 수신 등을 위한 후원자 정보등록을 아래의 사이트에 부탁드립니다.

http://gpinternational.org/gp_donation

미국 : Check - Pay to the order: GP USA (Check memo: Kyung Lee/Da Woon Jeong)

Address: GPUSA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USA 92804

PayPal, Venmo or Smart Pay donation is available at

<https://www.gpusa.org/m-donation>

(Please write Kyung Lee, Da Woon Jeong in "Selected Missionaries.")